

광주 봉축행사 '전통등 만들기'로 시작

광주지역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2014빛고를 관등축제 봉행위원회(위원장 연광, 중심사 주지)는 지난 3월 22일~23일 양일간 불교회관 법당에서 전통행렬등 만들기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등 만들기는 목어등, 보리수등, 복주머니등, 연꽃등, 운판등을 비롯한 10가지의 종류의 등을 만드는 행사로, 각 사찰과 단체에서 2~3인등이 참여해 전체 70여명의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광주불교연합회 김정호 간사는 "이번 등 만들기 행사는 전통등 보급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사찰별로 작은 크기의 전통등 만들기를 보급해 향후 대형 장엄등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22일 골조 조립과 배접, 23일 채색작업을 진행했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봉축 행진응용으로 팔모등을 주로 사용했으나, 올해부터 전통양식의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전통등은 올해 제등행진

이 실시하지 않는 관계로 광주전 주변에 장식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각 사찰과 단체별 참가자들 또한 처음 접해 본 전통등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중심사에서 참가한 백현숙 씨는 "완성된 후 불을 비춰보니 참으로 예뻐요. 기존 등에 비해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었지만,

전통양식 등으로 교체

광주전 주변 장엄예정

사찰별 제작 점차 실시

만드는 과정이 즐거워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 해도 좋을 듯 싶네요"라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행사가 개최된 시간도 주말이어서인지 참가자들이 아이들과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행사를 주관하는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번 봉축행사가 끝나고 내년 봉축행사를 준비하면서는 사찰별로 소형등 만들기 행사



광주 불교회관에서 열린 전통 등 만들기 공방에서 참가자들이 만든 등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찰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통등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봉축행사는 4월 18일 광주시청앞 사거리에서 점등식을 시작으로 26일 6시 30분 광주공원 앞에서 봉축연합법요식인 관등법회, 봉축음악회가 열릴 예정

이다.

이외에도 26일 27일 양일간 빛고를 연꽃문화제, 청소년음악놀이, 외국인문화축제, 영산제 시연, 전통차 시연 및 들자회가 펼쳐지며, 4월~5월까지 광주일원에서 16개의 봉축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덕사 인드라마불교대학 개교·입학식

모든 생명이 '한몸, 한생명'임을 실천하는 인드라마생명공동체의 광주지역 불교대학이 개설됐다. 지난 3월 17일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는 인드라마불교대학 개강 및 제1기 입학식을 갖고 첫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선덕사 인드라마불교대학은 원묵 스님, 승묵 스님, 이종표 전남대 교수를 지도교수로 부처님의 생애, 불교문화, 디가니까야, 계율과 불교윤리, 사념처경, 대승불교 개론, 경전의 이해, 불교사의 이해, 수행, 수계식 등의 강의를 1년 과정으로 진행한다.

입학식에는 22명의 신입생이 동참한 가운데 1부 불교의례, 경과보고, 학장 인사말, 교수진 소개, 내빈소개, 신입생 소개, 학사일정 안내, 다과,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이어 2부에는 학장 이종표 교수의 '어떻게 불교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불교대학을 통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이다"라며,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두려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을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정각사, 마가 스님 초청 법회

전북 익산지역의 불교활성화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익산 오산면 정각사(주지 일행)는 3월 23일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33선지식 초청법회의 2번째 법회로 '참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마가스님 초청법회는 지역불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신선함을 선사했다.

마가 스님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곧 나의 미래가 된다"며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각사는 4월 29일 전 직지사 주지 자광스님 초청해 33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예봉사, 삼성각 낙성법회

전북 완주 예봉사(주지 진성)는 3월 23일 삼성각 낙성법회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예봉사 주지 진성스님의 집전으로 전통방식인 어산과 작법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바라춤, 나비춤 등의 작법무와 법패의식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한국불교 조계종 교육원장 학암 스님, 종회위원장 용주 스님, 대구교구원장 대하 스님, 충북교구원장 무상 스님, 총무부장 대병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조계



종의 종단임원스님들이 동참해 삼성각 낙성을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갖고 올해 봉축행사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수자타 대연회실에서 개최된 이날 임시총회에는 30여개 회원사찰이 참여한 가운데 봉축행사 설명 및 예산, 봉축분담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올해 봉축행사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예년에 없던 큰 변화이지만 광주불교발전을 기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봉축행사는 큰 기대와 함께 광주지역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시민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로



전북불교시민연대가 전북불교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다. 전북불교시민연대는 3월 23일 전북생명평화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불교네트워크로 명칭 변경의 건과 결산보고안을 처리했다.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할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임기 2년의 임원진 중 오종근(호원대 교수), 박인순(전 주부클럽 전북지회장), 유지원(사단법인 자연음식문화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이일순, 김영돈 감사가 유임됐다.

오종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북불교시민연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내 사부대중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전북불교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명에서 보여 지듯 지역 내 불교의 인드라마를 잘 가꿔 지역불교의 연

대와 협동을 통해 낙후된 지역불교의 증흥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전북불교네트워크는 정기총회에서 2014년 사업계획을 통해 회원확대와 후원이사회의 정례화 추진 등의 조직사업과 지역 내 새로운 불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각종 시민강좌와 불교강좌 등을 확대하고, 전북지역 불교순례길 연구, 청소년생명평화실천단 운영과 생명평화주말학교 운영의 확장 등의 대중사업을 확정했다. 또 전북생명평화센터는 향후 지역 내에서 불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평화운동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중 사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설기관인 자연음식문화원과 생명평화생협(준), 봉사단체 천천클럽 등은 공식적인 출범을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스님 제74주기 봉찬대제



민족의 선각자이자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명중의 한분인 백용성스님의 열반일인 3월 24일 '용성진종조사 임멸 74주기 봉찬대제'가 봉행됐다.

용성진종조사의 탄생지인 전북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 용성교육관에서 열린 이날 봉찬대제는 7여래불, 69전등조사, 7대사와 역대 104조사에 대한 대례제도 함께 봉행됐다.

대례제에 열린 추모법회에는 법륜 스님의 인사말, 용성조사 행장소개, 법륜, 백용성조사의 유훈심사무량수도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도문 스님을 비롯해 법륜 스님,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수행행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장, 정토회원 등 5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용성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겼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용성 조사께서 대한독립의 씨를 뿌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며 "오늘날 엄청난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국 선열지사들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용성 스님의 열반계승을 해설하고 "용성 조사께서는 일제에 맞서 항일운동을 펼치는 한편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지성화를 주창한 민족의 선각자이다"며 "우리불자들의 용성 조사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 불교토를 장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죽림정사와 백용성 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정토회는 올해 '용성 조사 탄신 15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사의 현재적 계승을 고민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일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4. 4. 12(토) 오후 1시부터 ~ 4. 13(일) 오후 4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낮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빙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